

국내외 사실표준화 분석 및 IT표준화 포럼 전략분석 틀에 관한 연구

김정현, 심성구, 구정철, *우훈식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, *대전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
hun@tta.or.kr, skvnara@tta.or.kr, kckoo@tta.or.kr, hswoo@dju.ac.kr

A Study on De-facto Standardization Analyzing and and Strategic Framework of IT Standardization Forum

Jung-hun Kim, Sung-Gu Shim, kyoung-cheol Koo, Hoon Sik Woo
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ssociation, Daejeon Univ.

요 약 <ABSTRACT>

IT 시장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융합화로 국제표준의 적기 도입과 기업의 서비스 정책·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, 국가별/기업별 표준경쟁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간 표준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.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표준을 활용하며 그 영향력도 극도로 확대 되고 있다.

본 논문에서는 표준화추진의 큰 축인 공식표준화와 사실표준화를 비교하고,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실 표준화의 기원과 추세, 국내 추진현황 등을 분석 소개한다. 또한, 이를 바탕으로 국내 IT표준화 전략 포럼별 특성 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한다.

I. 서 론

IT 시장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융합화로 국제표준의 적기 도입과 기업의 서비스 정책·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, 국가별/기업별 표준경쟁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간 표준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.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표준을 활용하며 그 영향력도 극도로 확대 되고 있다.

과거에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R&D와 표준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왔고 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. 하지만, 최근 표준은 기술개발의 성과 혹은 결과라는 측면에서 표준화가 인식되어 지고 있으며, 특히 연구개발 - 표준화 - 시장창출이라는 3대 추진축이 맞물려야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고착화 되고 있다.

최근 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은 현재의 기술 표준화의 동향을 기반으로 향후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 후 제품을 개발하며, 아울러 표준으로 인정받은 기술만이 제품의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특히,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표준화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하며 표준화 과정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견해를 미리 파악하여 기술 및 서비스의

로드맵을 구성, 타 기업보다 먼저 시장 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는 시장 뿐만 아니라, 기술개발 과정에서도 표준화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, 3대 추진축이 잘 조화가 되어야 국제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한편, 표준화 추진에 있어 최근의 급격한 기술혁신과 기술간의 융합화에 따라 국제, 지역,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식표준화(De-jure) 보다는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를 적시적소에 반영할 수 있으며, 특정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신속한 포럼/권소사업형 표준을 개발하는 사실표준화(De-facto)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이러한 사실표준화 기구는 특히, 80년대 후반부터 북미, 유럽,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개가 활동하고 있으며, 기술의 진화에 따라 평균 10년의 주기로 생성·소멸을 거듭하고 있다[1]. 최근에는 공식 표준화기구와 사실 표준화기구 상호간 공신력 제공/획득 및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다.

본 논문에서는 표준화추진의 큰 축인 공식표준화와 사실표준화를 비교하고,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실 표준화의 기원과 추세, 국내 추진현황 등을 분석 소개한다. 또한, 이를 바탕으로 국내 IT표준화 전략 포럼별 특성 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한다.